

Kwangdong
광동 침향환
2,000만원
판매 돌파!
| 무료상담 | 1899-1260

중앙일보

2025 미래엔 공모전
손글씨 & 창작글감
응모 기간 2025. 5. 2. ~ 10. 18
미래엔 공모전 바로 가기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트럼프 “한국서 숙청·혁명 일어나는 듯”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 올려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밝히기도
대통령실 “협상 전 기죽이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며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25일)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고 썼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여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숙청’ 또는 ‘혁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잘못된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회담 전에) 기부터 죽이는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나”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서 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약 50분 동안 진행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입장 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한국

의 역할 강화 요구도 거론된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일부 충돌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라며 “주권 국가에서 주권자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엔 “저는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핵 문

제, 북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경북 경주에서 10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지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왔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상황에 비해) 훨씬 나쁘다”며 “불신도 매우 깊어졌고, 적대감도 매우 커졌다”고 했다.

워싱턴=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관계기사 4, 5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ongan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면서 기업 옥죄는 여당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도 준비

view 대통령은 ‘실용주의 친(親)기업’을 말하지만, 여당은 거침없이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 대통령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강성 여당의 역할이 더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통과시킨 뒤 50여 일 만이다. 여당은 한반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 속도전이 기업 경영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앞서 24일엔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을 원천 기업으로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전까지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고 반발한 경제 8단체는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무기력하게 물러섰다.

김기환·김나한 기자 khkim@joongang.co.kr

▶ 3면 ‘더 센 상법 통과’로 계속

더 인터뷰 > 8면

“한국 기업의 백신지원
도울 수 있어 신난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미래엔
전국 어린이
창작
동요대회

2025 제1회

어린이 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2025 제1회 미래엔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창작동요 공모전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창작동요 챌린지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1~6학년	초등학교 학급, 동아리, 모임, 개인 등
참가형식	창작곡 제출	[예선] 동영상 심사 [본선] 현장 경연	동영상 제출
접수일정	5월 9일(금) ~ 5월 30일(금)	7월 14일(월) ~ 9월 25일(목)	6월 2일(월) ~ 9월 30일(화)
시상 규모	총 상금 780만원 대상 1팀, 금상 7팀	총 상금 1,220만원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4팀, 장려상 4팀	총 250만 원 상당 상품 베스트 퍼포먼스상 10팀, 인기 퍼포먼스상 10팀
결과 발표	최종 수상자 6월 9일(월)	본선 진출자 9월 30일(화)	최종 수상자 11월 1일(토) 온라인 발표
시상식	11월 1일(토) 한국교총 컨벤션홀 (*부르기대회 본선 실시 후 시상)		비대면 시상

문의: 미래엔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 홈페이지 게시판

주최: 한국교총단체총연합회 MiraeN 주관: 초등총동요학교, 목정미래재단
후원: 교육부, 한국창작동요협회, 경기도초등음악교육연구회, 교사크리에이티브랩, 대한교사협회, ★ May비트스 보이스뱅크 voice tank

자세히 보기 & 접수하기